\*김현진 – 로맨스 성형 그리고 탈근대의 자아 안과 밖32 (2012)

입증책임(burden of proof)

전자 존재의 유무 – “전자가 있다”는 것을 입증 해야 함. / “전자가 없다.”가 아니라…

신이 존재한다. –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/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.

창조론은 과학이다. –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해야 한다. / 부인하는 사람이 증명 해야 한다.

결론 :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해야 한다.

모든 학문의 근본을 따지면 철학(?)

입증책임 -가해자(혐의자)

-피해자 <- 혐의자의 혐의를 입증 해야 해(입증책임)

\*문제점

전문지식의 격차(예시 : 의료 소송 – 의사의 실수를 입증 해야 하는 데 힘들어..)

정보의 격차(예시 : 공해 소송 – 담배의 유해성 입증, 특정 공장에서 일하는 행위의 위험성 입증 등

자원의 격차(예시 : 공해 소송 – 개인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..)

위의 사례는 가해자가 입증책임을 진다. (혐의가 없음을 증명 해야 한다.)

\*일응 : prima facie – 일단(일본식 한자어..)

\*이환 : 병에 걸리다.

\*분과학문 / 분과영역의 충돌

경제학 – 경제적 고려

심리학 – 정치적 고려

종교 – 종교적 진리

과학 – 과학적 진리

일상 – 일생

나의 삶 속에 있는 이질적인 원칙

공부, 놀기 ….

결론 : 총체적(지식 전체 + 인생 전체 + ......)